

월드컵 16강 경기 결과

獨 클로제-포돌스키 2골 합작

독일 2-0 스웨덴
막강 화력의 전차군단이 첫골을 터뜨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 다시 원발슛으로 득점을 올렸다. 이번 대회 자신의 통산 3번째 골. 독일의 공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스웨덴은 엄청난 득점 격으로 전반 35분 테디 루치치가 클로제에게 불필요한 반칙을 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아르헨 로드리게스 '터닝슛' 8강 전인

아르헨티나 2-1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크레스포와 허비에르 사비올라가 이끄는 투톱 라인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멕시코의 중원 압박과 견고한 수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갔다 대머 동점골을 터뜨린 것. 기세를 올린 아르헨티나는 이후 막시 로드리게스와 사비올라 등이 강력한 슈팅을 날리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지만 '거미손' 오스왈도 산체스의 선방에 걸리거나 어렵게 골문을 벗어나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월드컵 소식

이영표 '탈락팀 베스트 11'에 선정

獨 월드컵 홈페이지

'초요미' 이영표(토트넘)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팀에서 고른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독일월드컵 공식 홈페이지는 25일 "아쉽게도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뛰어난 실력을 과시한 선수들도 '드림팀'을 구성해 이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11명을 선정했는데 이영표가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네그로)이 뽑혔다. 홈페이지는 "이 선수들도 팀을 꾸린다면 월드컵 우승도 가능하다"면서 "이들의 플레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은 팬들에게 아쉬운 일"이라고 평했다.



브라질 감독 '매직 4인방' 재가동

카를루스 아우베르투 파헤이라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 '매직 4인방'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을 상대로 몸을 풀듯 가볍게 4대1 대승을 거둔 브라질은 오는 27일 가나와의 경기에서부터 '매직 4인방'을 다시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KIA 장성호, 9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통산 700타점 달성도... 팀은 한화에 3연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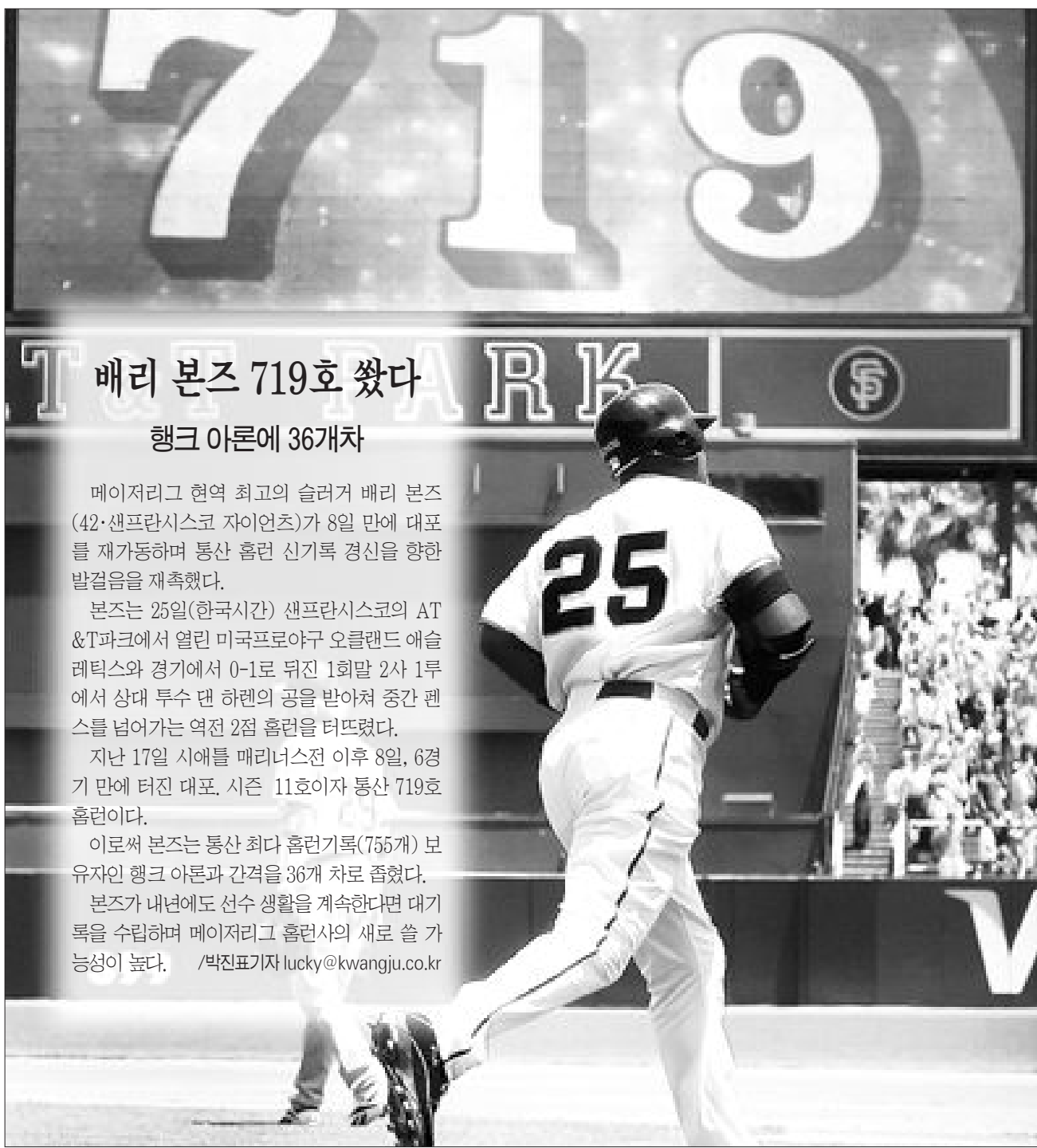
KIA타이거즈가 3연패의 늪에 빠졌다. KIA는 25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한화전에서 장성호의 2점홈런과 대타 김경진의 솔로포에도 불구하고 마운드의 붕괴로 6-7로 역전패했다.

2)로 패했던 KIA는 이날도 5-4로 앞선 8회 이범호에게 역전 3점 홈런을 허용, 3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스나이퍼' 장성호(KIA)는 투런포를 터트리며 역대 10번째 9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통산 167개)과 역대 16번째 통산 700타점을 동시에 달성했지만 팀의 패배로 그 빛을 잃었다.

운드를 물려받은 윤석민은 3이닝 2안타(1홈런), 3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3승 2패 2세이브. KIA는 3회 장성호의 우월 투런포로 기선을 잡은 뒤 4회 김성훈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보냈다. KIA는 계속된 공격에서 이현곤과 이용규의 연속 2루타로 2점을 더 더어나며 승부를 굳히는 듯 했다. 하지만 3회에 2점을 헌납한 KIA는 4회(1점)와 8회(3점) 한화의 이범호에게 홈런 2방을 내주며 역전 당했다. KIA는 9회 대타 김경진의 솔로포로 1점

차까지 좁혔으나 승부를 뒤집기엔 뒷심이 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Table with 6 columns: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It lists the top 8 teams in the KBO lea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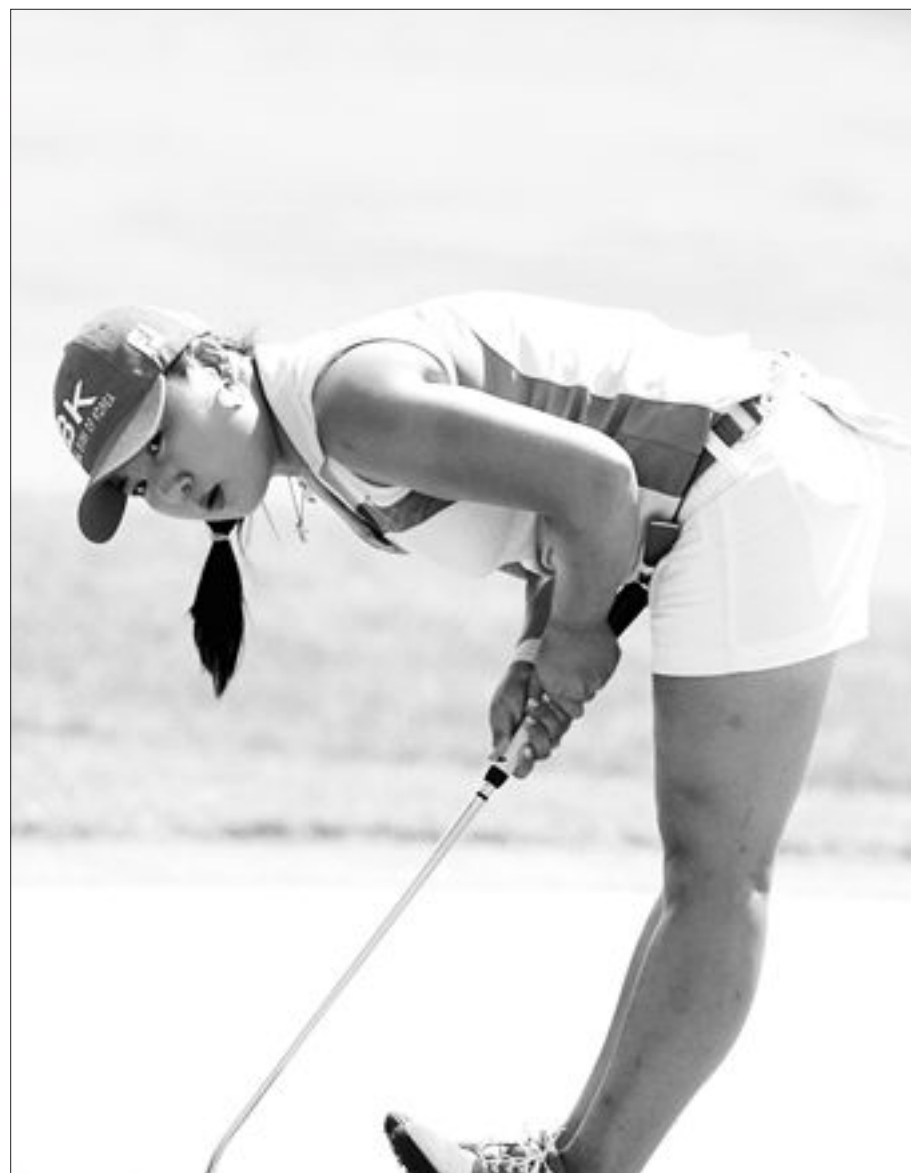
배리 본즈 719호 쏘다

행크 아론에 36개차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슬러거 배리 본즈(42·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8일 만에 대포를 재가동하며 통산 홈런 신기록 경신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본즈는 2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의 AT&T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에서 0-1로 뒤진 1회말 2사 1루에서 상대 투수 맨 하겐의 공을 받아쳐 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역전 2점 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17일 시애틀 매리너스전 이후 8일, 6경기 만에 터진 대표. 시즌 11호이자 통산 719호 홈런이다. 이로써 본즈는 통산 최다 홈런기록(755개) 보유자인 행크 아론과 간격을 36개 차로 좁혔다. 본즈가 내년에도 선수 생활을 계속한다면 대기록을 수립하며 메이저리그 홈런사의 새로 쓸 가능성이 높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배리 본즈가 25일 샌프란시스코의 AT&T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1회말 역전 투런 홈런(개인통산 719호)을 터뜨린 뒤 1루를 돌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의 장정이 25일 미국 롤러스트힐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 사출째 경기 17번홀에서 버디퍼트를 실패한 후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정 선두·김미현 공동 2위

LPGA 웨그먼스 3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 LPGA 사출째 경기에서 한국 선수끼리 선두 자리를 바꿨다. 장정(26·기업은행)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록커스트힐골프장(파72·6천221야드)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쏟아내며 중간 합계 11언더파 205타의 성적표를 적어냈다. 2라운드까지 공동 8위에 머물렀던 장정은 이로써 전날까지 선두를 달렸던 안시현(22)을 밀어내고 단독 선두에 올라 올 시즌 자신의 첫 우승이자 한국선수 8호 우승을 노리게 됐다. 진클럽스앤드리조트오픈 우승으로 부활의 나래를 활짝 편 김미현(29·KTF)도 중간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브리티니 램(미국)과 함께 공동 2위로 도약, 한국선수끼리 우승 다툼에 뛰어들었다. 반면 이를 연속 선두를 달렸던 안시현은 3타를 잃어 5언더파 211타 공동 19위로 떨어져 힘든 추격전을 벌이게 됐다. 올 시즌 6차례 톱10에 입상했지만 우승 트로피가 없었던 장정은 페어웨이를 단 한번만 놓칠 정도로 드라이빙이 정확했고 퍼트 또한 안정됐다. 1,2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한 장정은 5번홀(파3)에서 15야드

짜리 어프로치샷을 흠에 떨어 뜨리는 등 3라운드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다. 장정은 "출전 선수 모두가 이 코스에 익숙해 있어 최종 라운드에서 더 좋은 수스코어를 내야만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 유선영(20)도 8언더파 208타를 공동 4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고 한희원(28·힐라코리아)과 이선화(20·CJ)도 6언더파 210타로 공동 13위에 올라 상위권 입상을 노리고 있다. 한편 맥도널드L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박세리(29·CJ)는 2오버파 218타로 공동 63위까지 떨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PGA 톱10 진입 눈앞

부즈앨런 클래식 공동 13위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부즈앨런클래식에서 시즌 두번째 톱10 입상 가능성을 높였다. 최경주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포모택의 TPC에브라함(파71·7천232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9언더파 204타로 2라운드에 이어 공동 13위를 유지했다. 선두는 합계 19언더파 194타를 달리고 있는 벤 커티스(미국).



26일

▲메이저리그(텍사스-콜로라도)(05 : 00-Xports), <휴스턴-시카고>(08 : 55-Xports)